

전국 시도지사 '조기 추경·확장 재정' 한목소리 촉구

내란 사태 이후 첫 회동...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공동성명서 발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지방시대 실현 정책 차질없이 추진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회동을 가진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자치경찰제도 시행 후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예산을 수립하지만 무인 교통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점을 지적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안전 보고에 이어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 따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추가 재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완화 및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특

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11개 시장·도지사들이 참석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 ▲2024년 협의회 운영성과 ▲유보통합 대응방안(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전발굴 강화방안(안)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안 안전 논의 ▲사·도 홍보 및 협조사항 ▲제18대 협의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도지사 협의회는 2025년부터 지방안전 발굴과 안전 내실화를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 내 3개 분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제18대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선임했으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1999년 창립돼 17개 시도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는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17개 시도지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이민자와 함께하는 글로벌 포용도시 조성 나선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이민자인권센터 등 10대 과제 추진

광주시가 외국인 유입과 정착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민자와 함께하는 글로벌 포용 도시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17일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광주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를 열어 '제1차 광주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광주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외국인주민과 외국인 지원 기관·단체 대표, 외국인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본계획에서 '이민자와 함께 글로벌 포용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5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5대 전략은 ▲문화다양성 기반 소통으로 상호포용 환경 조성 ▲이민자 정착과 성장 기반 마련 ▲이민자 인권증진 및 보호 ▲이민자와 함께 세계 도시로 도약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10대 핵심과제는 ▲글로벌시민 인식 개선 ▲이민자 인권센터 설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역할 강화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유학생 정주 지원 확대 ▲취약이민자 보호 강화 ▲지역수요 기반 광역행태사 설계 ▲현장소통형 정책 거버넌스 ▲해외인력 성장체계 마련 ▲글로벌도 시브랜드 제고 등이다.

광주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월 광주 연구원에 외국인정책을 현안 연구과제로 의뢰했으며,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협업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표적집단지점(FGI) 조사, 세부사업 발굴 등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지원 기관·단체, 광주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광주지역 외국인주민수는 2023년 11월 기준 4만6859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연평균 7.8%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유치 및 지원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지원 시·군 농수산물 수출 대폭 증가

나주시 등 7곳 우수 시·군 선정

전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22개 시·군의 농수산물 수출 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수출용 나주배 신 품종 개발 및 지원, 수출 전문단지 활성화를 통한 배 수출 전라포용화에 성공하는 등 혁신적인 수출 지원 정책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김, 미역 등 수산물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흥군은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을 통해 유자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사군 맞춤형 시책으로 농수산물 수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2024년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으로 나주시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은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 늘어난 7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군 협력과 수출기업의 노력으로, 지난해 연간 수출 총액 6억3000만 달러를 이미 초과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전남도는 우수 시·군 평가를 한 결과 나주시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완도군과 고흥군이 최우수상, 목포시, 신안군, 장흥군, 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 시·군에는 도지사 기관 표창과 포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26일 수출기업 및 관계자 전담대회에서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매립장 불필요 시설 제시 40억 절감...광주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하반기 우수사례 5건 선정

광주시는 17일 "광역위생매립장 색도 저감 시설 설치의 불필요성을 제시해 예산 절감한 사례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적극행정을 확산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올해부터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링단이 예산심사에 직접 참여했다. 최우수 사례는 '광역위생매립장 색도 저감 시설 설치의 불필요성 제시'로 시설비 40억원 등 예산을 절감했다.

우수 사례는 광주 최초 반도체 설계(팹리스)기업 유치, 민간 배달업 횡포에 맞서는 광주공공배달업 등 2건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는 법원 사건을 활용해 조세 징의 실현, 광주 민간·군 공방 통합이

전 소통이 났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적자인 우수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인사 특전(인센티브)이 부여되며, 소관 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영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시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20일 앞당긴다

3급 2명·4급 10명 등 159명 승진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0일 앞당겨 단행한다.비상 정국에 따른 조직 안정화와 새해 일하는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위해서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원 직위에 3급 2명, 4급 10명, 5급 28명 등 총 159명을 승진 의결했다. <명단 21면> 상반기 3급 승진자는 2명으로, 최태조(미래차

산업과장), 신재욱(공간혁신과장)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자 4급 이상 간부와 1월 2일자 5급 이하 전보인사를 동시에 마무리하고, 정기인사를 예년에 비해 20여일 앞당길 계획이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후 새롭게 꾸려진 담당부서와 함께 내년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제 240326-중-1668330]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